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18 SPRING

VOL.9

SPECIAL COLUMN

한국형 헤지펀드에  
주목할 때

NOW

고수의 한수는 분산투자,  
금과 외화자산을 따로 담는다

PREMIUM PEOPLE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기회를 잡다  
이창혁 미팩토리 창업자





2018년 황금개띠해

(2018.2현재)

# 일임형 ISA로 절세하시~개! 이벤트

## 신규하시~개! 이체하시~개! 이사하시~개!



### IBK기업은행에서 일임형 ISA거래하면 경품이 쏟아집니다!

**이벤트 기간** 2018. 3. 1.(목) ~ 2018. 4. 30.(월)

**이벤트 내용** Event 1~3 중, 1가지 이상 충족고객 추천하여 경품지급

#### Event 1. 신규하시~개! 🐾

30만원이상 신규가입 및 자동이체(10만원이상, 1년이상)등록

#### Event 2. 이체하시~개! 🐾

신규 자동이체(10만원이상, 1년이상)등록 및 10만원이상 추가납입

#### Event 3. 이사하시~개! 🐾

타사 ISA거래 고객중, IBK기업은행으로 계좌이전고객  
(이벤트 종료일 잔액30만원이상 고객)

#### 경품 이벤트

1등(1명)



황금개띠 골드바 3,75G(약 30만원)

2등(50명)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1만원)

3등(80명)



스타벅스 기프트콘(카페라떼 1잔)

※ 5만원 초과 경품의 경우 제세 공과금(22%)은 본인부담이며, 30일 이내 경품 미수령 또는 잘못된 고객 정보(핸드폰 번호, 주소, 성명) 등의 경우 사전통보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이벤트 경품 및 행사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환일이 지난 기프트콘에 대해서는 재발송 되지 않으며, 당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BK고객센터(☎1566-2366) 및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2018. 5. 16.(수) 홈페이지 게시**

[언제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는 방법] · PC www.ibk.co.kr → 개인뱅킹 → 상품몰 → ISA상품 → 일임형ISA 가입하기 · 스마트폰 NE뱅크 어플실행 → 첫화면 좌측상단 전채메뉴 →뱅킹서비스 →ISA → 일임형ISA → 일임형ISA 신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0594호(2018.02.19) 출급번호 FX917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8-00847호(2018.02.22 ~ 2018.04.30) **게시기한: 2018.04.30**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계좌 내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임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MP별 상이, 연0.1~0.5%)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계좌는 중도 해지시(특별중도해지 사유 제외)일반과세(15.4%)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IBK 기업은행 : ☎080-800-0119)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를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ibkethics@ibk.co.kr) ISA비교공시사이트[ISA다모아(isa.kofia.or.kr)]에서 기업은행 일임형 ISA의 공시 수익률등을 확인하여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모아 사이트에 공시되는 수익률은 금융회사간 자산 운용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가상의 지표로서 실제 수익률과 다릅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WMS사업부 자산솔루션팀 ☎ 02-729-6533

2018 SPRING VOL.9

#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발행일 2018년 3월 1일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기획 WMS사업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Tel. 02-729-6044 디자인 · 제작 · 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경제 · 금융 정보 매거진입니다.

### SPECIAL COLUMN

- 6 Special Column ① 한국형 헤지펀드에 주목할 때
- 10 Special Column ② 글로벌 국제금리 급등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경제 전망
- 14 Special Column ③ 대한민국은 지금 코딩 열풍

### CONSULTING

- 20 Now 고수의 한수는 분산투자, 금과 외화자산에 따로 담는다
- 22 금융 포커스 주요 세목별 세무정보

### LIFE

- 28 Premium People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기회를 잡아 이창혁 미백토리 창업자
- 34 테마가 있는 여행 사람, 신, 예술이 어울려 빛어낸 신비의 섬 인도네시아 발리
- 42 실버 이야기 여성 갱년기 vs 남성 갱년기
- 46 트렌드로 읽는 경제 물렁에 빠지다
- 50 The Master 양복과 함께 걸어온 외길 52년 봄바니에 장준영 대표
- 56 취미 더하기 더 큰 세상을 보자, 드론
- 60 문화가 있는 오늘 따뜻한 봄날에 만나는 전시 · 공연
- 62 도서 소개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문장들



28



34



50

1.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행이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대상지표(주가 등)의 움직임은 과거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PECIAL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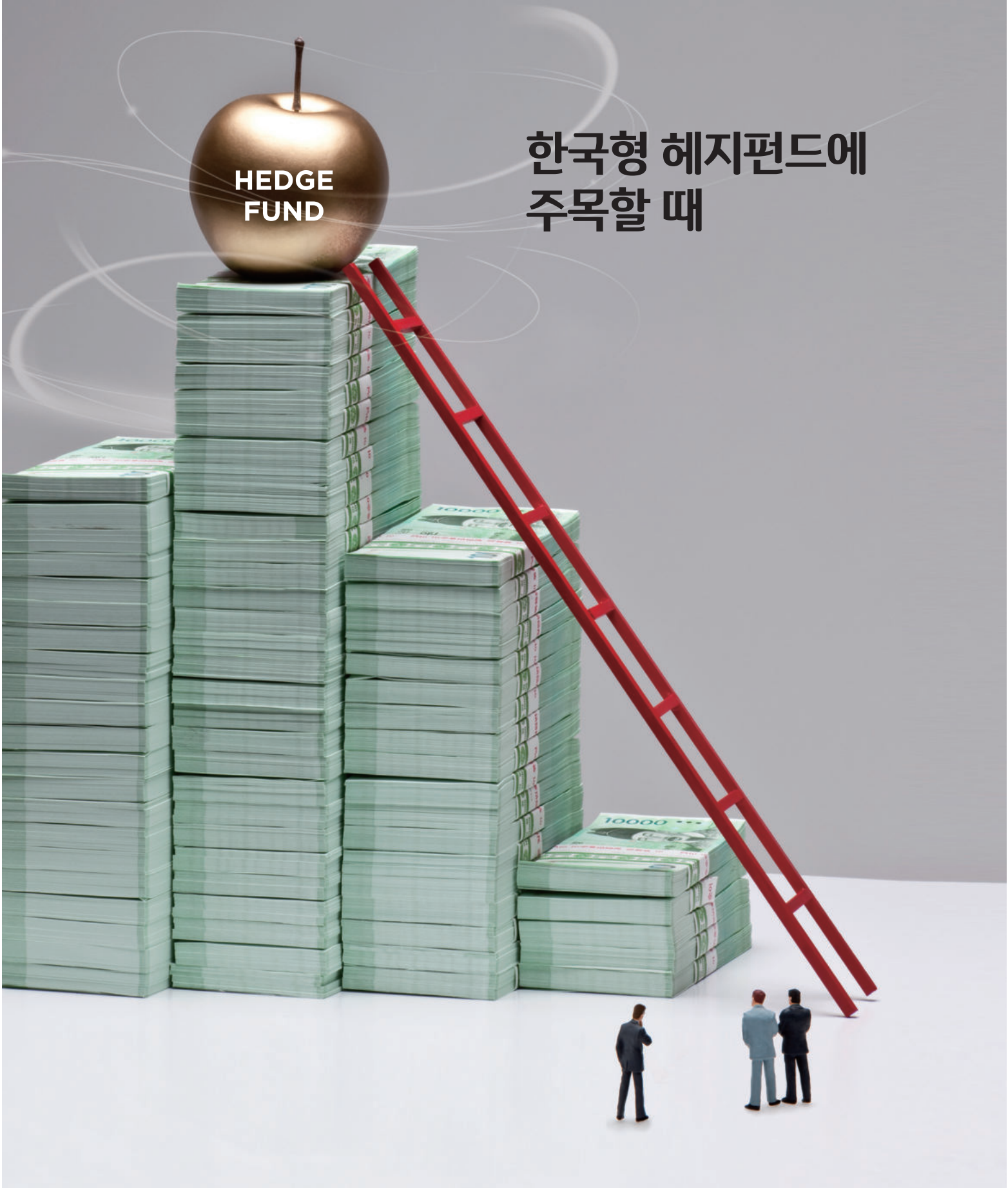
화제가 되고 있는 경제 · 금융 관련 사안들을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6 **Special Column ①**  
한국형 헤지펀드에 주목할 때

10 **Special Column ②**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경제 전망

14 **Special Column ③**  
대한민국은 지금 코딩 열풍





# 한국형 헤지펀드에 주목할 때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호황을 누렸다. 미국의 주요 지수인 S&P500 및 나스닥 지수는 나날이 최고치를 경신했고 유럽, 이머징 주요국 지수들도 모두 상승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산되면서 '박스피'라고 불리던 KOSPI 지수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연초 전 고점을 돌파하더니 지금은 2,500pt를 넘어섰다. 이러한 호황 속에서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고객들 모두 웃을 수 있었던 지난 한 해였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 상품 중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혹은 고수익을 달성한 한국형 헤지펀드가 시장의 관심과 주목을 많이 받았다.



##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장

한국형 헤지펀드는 2011년에 탄생하였으며 한국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존 사모펀드보다 운용 관련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국내 금융환경, 글로벌 규제 추세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절대 수익을 추구하며 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소수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유독 지난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기관 투자자들과 소수 거액자산가는 2012~2013년부터 투자를 해왔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트러블 레코드 부재로 선택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세대 한국형 헤지펀드는 기존 대형 운용사에서 신설된 부서형태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나갔고 뒤를 이어 2015년에 룭샷전략을 바탕으로 운용하는 2세대 한국형 헤지펀드가 등장하였다. 2세대의 경우 KOSPI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도 10% 중후반대의 성과를 기록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하반기 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 자산운용사 진입 문턱이 낮아지자 신생 운용사는 물론 증권사들도 헤지펀드 시장에 발을 들이면서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게 된다. 이 시점에 기존 2세대 헤지펀드 성과가 부진에 빠졌고 이에 룭샷전략은 물론 메자닌(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투자 등과 같이 여러 개의 전략을 구사하는 멀티전략 헤지펀드가 등장하고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3세대 헤지펀드이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4세대 한국형 헤지펀드가 등장하였다. 기존 세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보다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예금금리+ $\infty$ 의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은행 금리는 물론 기존 단기 금융상품인 MMF, MMT 등 보다 약 30~50bp의 초과 수익을 제공하며 시중의 단기자금을 엄청난 속도로 흡수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17년 한국형 헤지펀드 수탁고가 2015년 대비 3.7배(AUM 3.4조에서 12.9조로 증가)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외형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기였다.





**한국형 헤지펀드에 주목해야 할 점**

그렇다면 올해에는 어떠한 한국형 헤지펀드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지? 필자는 한국형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일반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1년에서 2년 정도 성과가 우수한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본인이 가입하면 성과가 지지부진하거나 하락하는 경험을 해 본 투자자의 수가 적지 않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익률 상위를 기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시장 상황에 맞아떨어져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성과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약 2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시장을 주도하는 유형 및 섹터들이 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형 헤지펀드들의 경우 성과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헤지펀드라는 의미 자체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았든 나빴든 운용 시작 후부터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었는지

가 그 헤지펀드 운용사의 역량이며 실력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형 헤지펀드의 운용역이다. 펀드의 성과는 누가 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스타 매니저가 운용하던 펀드들이 매니저 변경 이후 성과가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주로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부운용역이 책임 운용역을 보좌하는 형태로 성과가 흔들려도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형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매니저가 본인이 맡은 분야를 모두 책임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해당 매니저의 역량을 믿고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공모펀드보다 훨씬 크다. 과거에 성과가 좋았던 매니저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5년 제도 개편 이후 헤지펀드 관련 자산운용사가 17개에서 109개로 늘어난 현 시장에서 누가 운용을 하는지는 분명 투자자로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형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방법**

이러한 한국형 헤지펀드에 투자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올해는 한국형 헤지펀드들이 일반 개인 고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별 수익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분명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이다.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한국형 헤지펀드의 경우 49인 이하만 투자할 수 있으며 주로 기존에 투자했던 고객을 우선적으로 가입시키기 때문에 신규로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49인 이하의 투자자가 다 차지 않더라도 수익률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 투자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는 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헤지펀드 가입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수요를 위해 기존 운용 전략과 유사한 신규 펀드 출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도 투자할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직접투자 외에도 펀드의 수익을 연계한 원금보전추구형 DLB 상품을 한국형 헤지펀드에도 적용한 상품도 출시 예정이다. 이러한 DLB 상품들은 펀드 성과가 좋으면 펀드 투자 비중을 늘리고 펀드 성과가 부진하면 펀드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통해 고객의 원금을 보존하는 상품으로 변동성이 낮을수록 해당 상품의 운용전략에 적합한데, 한국형 헤지펀드들의 낮은 변

동성과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특징들이 이러한 구조의 상품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한국형 헤지펀드들이 일반 개인 고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별 수익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분명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들은 최근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신흥 시장이 아니라 2011년부터 여러 시장 상황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고, 성과를 통해 자신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입에 어려움을 가졌던 점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과거의 성과와 우수한 매니저들이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유명 매니저들은 물론 재야의 고수들까지 모여들고 있는 이러한 헤지펀드에 대해 단순히 가입이 어렵거나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포기하기보다는 한 번쯤 재테크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WIN CLASS



#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경제 전망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곡선 흐름이 예상보다 가파르다. 이달 들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한때 2.9%까지 치솟아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2014년 1월 9일 이후 3%를 넘는 적이 없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 1분기 안에 그 고지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 채권시장이 72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상승 주기에 돌입했다는 진단까지 할 정도다.

##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시작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는 미국 노동부의 지난 1월 고용시장지표 발표가 기폭제가 됐다.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실업률은 4.1%로 6달째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간당 평균임금도 26.74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는데, 고용지표 호조에 이어 임금 상승까지 확인되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최대 네 차례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지자 미국 국채를 찾는 수요가 줄어들었다. 결국 미국 정부는 금리를 올려서라도 채권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곧 주식시장의 유동성 이탈을 촉발한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채 금리 상승이 회사채 금리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오기도 한다. 실제 이달 초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다.

## 독일 등 주요국 국채 금리도 덩달아 '高高'

글로벌 장기 금리의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국채까지 덩달아 오름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과 인플레이션의 회복, 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요국의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는 것이다.

독일의 5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1월 말 0.02%를 기록, 201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늪에서 벗어났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월 초 0.73%까지 치솟았다. 5년 만기 영국 국채 금리 역시 1년전 고점인 1.45%까지 뛰었다.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와 일본 등의 국채 금리도 비슷한 양상이다. 오랜 기간 잠잠하던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회복되자 수년간 대규모 통화부양책 기조를 유지해 온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뚜렷해지면서 글로벌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이다.





“3%대 돌파는 새로운 시작점” vs “한 단계 더 뛰어오르긴 힘들어”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국 등 글로벌 국채 금리의 고공 행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 연준이 기준 금리 인상에 이어 국채 매입을 줄이기 시작했고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 중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만간 3%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재무부가 올 1분기(1~3월) 국채 매입을 줄이고 순발행 규모를 4410억 달러(약 479조 원)로 늘리기로 했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미국 국채 금리가 바닥을 쳤던 것이 지금의 새로운 금리 상승 사이클의 시작점이라고 진단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3%를 넘어 한 단계 더 뛰어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한다. 최근 인상 폭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가운데 이미 국채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어 통화당국이 금융시장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 서라도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급등하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대 근처만 맴돌 뿐 이를 쉽게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장기물과 단기물 간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 명목성장률과 명목금리는 장기적

으로 동행성을 보이는데 올해 미국의 명목성장률(4.4%)을 고려해 추정된 명목금리는 2.84%에 불과하며, 내년에는 오히려 2.6%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미국 국채 10년 만기 금리는 적어도 올해 3%대 수준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 우리나라에 나비효과?

이처럼 최근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높다. 우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국내 증시에 즉각적인 악재로 작용한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뉴욕 증시 급락 충격이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전날 대비 0.07%포인트 급등해 2.85%까지 치솟자 뉴욕 증시가 2% 이상 급락했다. 이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증시를 끌어내린 것은 물론, 국내 증시도 한동안 급격한 혼란상태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전 거래일보다 43.15포인트(1.68%) 하락한 2520선까지 밀렸다. 삼성전자 주가는 4%나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도 8.73포인트(0.96%) 내린 899.47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이 이날 하루에만 2865억 원을 순매도하는 등 장은 하루 종일 크게 흔들렸다.



이처럼 최근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높다. 우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국내 증시에 즉각적인 악재로 작용한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뉴욕 증시 급락 충격이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은 국내 경제에 소비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준다. 한국 역시 주요국의 금리 인상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자 부담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떨어져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쏟아내는 강남권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하락할 여지도 충분하다. 증시 등 국내 유입된 글로벌 자금의 유출 압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 자체가 미국 경제의 뚜렷한 성장하에 나타난 것을 의미하기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올해 최대 네 차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달러 강세에 따라 국내 기업 수출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은 국내 경제에 호재는 물론, 악재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기에 한국은행의 적절하고 신중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보인다.

좀비기업과 가계부채, 금리인상이 건드리는 두 개의 시한폭탄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파급은 결국 국내에 남아 있는 2개의 폭탄을 건드리게 된다. 하나는 14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메가톤급 가계부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자보상비용이 1도 되지 않는 좀비기업의 줄도산 우려다. 국내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속성장기를 거치며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현

상을 보여 왔다. 특히 전 정권에서는 부채에 의존한 단기부양 정책을 펼치다 보니 4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456조 원이나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의 낮은 고정금리 비중도 문제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600조 원 중 고정금리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40%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금액이 변동금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고정금리 역시 모두 장기적이지 않고 짧은 년 단위로 바뀌는 혼합형이 많아 한국의 가계부채 폭탄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리의 상승이 더욱 가혹하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3126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2794개보다 12% 가량 증가한 수치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한계기업에 빌려준 돈만 121조 원이다. 부채상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계의 연쇄적인 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국내 한계기업의 85.3%(2666개)는 중소기업으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한다. 국내의 기업들은 그간 저금리기조를 보였을 당시 장기대출로 시설투자를 하기보다 영업 외 비용의 축소에만 신경을 썼다.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역풍을 이제 고스란히 떠안게 된 모양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재계의 거인들이 무너지면서 일부는 현실로 나타나는 상태다. 앞으로 금리의 추가 인상은 기정사실이다. 바둑판이 뒤집히면 대마도 결국 죽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시기다. WIN CLASS



# 대한민국은 지금 코딩 열풍

지난 2016년 답마인드社가 인공지능(AI) '알파고'를 선보인 이후 많은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적 사고,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교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LG CNS는 카이스트와 손잡고 '카이스트 AI 아카데미' 신설했고, 포스코는 '인공지능(AI)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 실시하는 등 기업에도 AI 교육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업들의 이러한 AI 관심은 사교육 시장에 '코딩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 코딩과 프로그래밍의 차이점

코딩은 프로그래밍이다. 코딩과 프로그래밍의 사전적 의미는 거의 같다. 하지만 정확히 분류를 하자면 코딩은 '생각을 코드로 옮기는 일'이고, 프로그래밍은 '생각을 효율적인 코드로 작성하기 위한 일련의 일'이다. '코딩'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말하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이다. 우선 프로그래밍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영타 속도를 올리는 것은 필수다. 컴퓨터 언어는 알파벳으로 이뤄져 있어 영타에 익숙하지 않다면 입문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격적인 학습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C++, Java, Python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 경우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문법이 쉽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언어인 '파이썬(Python)'을 학습하면 된다. 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적인 문법부터 제대로 학습하고 싶다면 'C언어'를 학습하는 걸 추천한다. 기본적인 언어 하나를 제대로 알면 다른 언어를 익히는 것은 아주 어렵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다. 직종에 따라 필요한 언어를 분류한 다음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 **뒷단(Back-end)/서버 쪽(Server-side) 프로그래머** : 파이썬, 루비, PHP, 자바, .Net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
- **앞단(Front-end)/클라이언트 쪽(Client-side) 프로그래머** : HTML, CSS, 자바 스크립트 + 디자인 감각
- **모바일 프로그래머** : 오브젝트C, 자바(안드로이드), 모바일 웹 사이트를 위한 HTML / CSS. + 서버 쪽 지식
- **3D 프로그래머 / 게임 프로그래머** : C/C++, OpenGL, 애니메이션 + 예술적 감각
- **고급 프로그래머(High-Performance Programmer)** : C/C++, 자바 + 수학과 양적 연구의 배경 지식

학습할 언어를 선택했지만 그 난해함에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스크래치(Scratch)'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이면서 비주얼 프로그래밍 플랫폼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는 아이들도 즐겁고 신나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스크래치를 이용해 원하는 아이템과 기능을 붙여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방법은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과 같다.

수학을 암기과목처럼 공식만 암기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 공식을 활용한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실력이 느는 것처럼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다.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방법

언어와 더불어 프로그래밍에서 '문제해결능력' 역량은 필수적이다. 여기서 문제해결능력은 어려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알고리즘의 정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령들로 구성된 순서화된 절차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비유를 하자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숫자와 사칙연산을 배운 것이라면, 알고리즘은 공식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 속에서 유명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Up Down 숫자 맞추기' 게임을 진행할 때 계속해서 절반으로 수의 범위를 줄여가며 목표한 숫자를 찾아가는데, 이는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 중 하나인 '이진 탐색(Binary Search)'이다. 이 외에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방법은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과 같다. 수학을 암기과목처럼 공식만 암기 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 공식을 활용한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실력이 느는 것처럼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다. 정렬 방법, 탐색 방법, 그래프 등 방법(공식)을 학습한 뒤 직접 코드를 작성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학습해야 실력에 도움이 된다. 알고리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몇 가지 추천하자면 다음과 같다.

<p><b>1</b></p> <p><b>백준 온라인저지</b> (www.acmicpc.net)</p>	<p><b>2</b></p> <p><b>코드플러스</b> (code.plus)</p>	<p><b>3</b></p> <p><b>코드포스</b> (codeforces.c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고리즘 학습을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접하는 사이트이다.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고 온라인으로 채점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학습할 수 있다.</li> <li>- 입문자를 위한 단계별, 유형별 문제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정답률을 통해 문제의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어 문제를 고를 때 유용하다.</li> <li>- 게시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내가 모르는 것은 남들도 모르기 때문에 게시판을 찾아보면 답변이 척척 나와 있다. 혼자서 문제를 풀다가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번 사이트의 최백준 대표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고리즘 관련으로 유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강의도 난이도 별, 목적 별, 온/오프라인으로 분류가 잘 되어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찾으시면 된다.</li> <li>-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의 정보를 들어갔을 때, 1번 사이트와 연계되어 문제 유형별로, 난이도 별로 풀어보면 좋은 문제가 추려져서 링크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싶은데, 문제가 너무 많아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도움이 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로 되어있어 혹시나 영어가 더 편한 사람에게는 적합하다. 영어를 못하더라도 아주 어렵지는 않다.</li> <li>- 정기적으로 프로그래밍 대회가 열린다. 혼자 문제를 풀다가 나의 현재 수준을 알고 싶을 때, 또는 '나이 정도면 모든 문제 풀 수 있겠다' 싶을 때 한 번씩 봐주면 다시 학습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li> <li>- 친구들의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가장 좋은데, 같은 문제라도 분명 다양한 풀이법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의 코드를 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게 된다면 더 좋은 학습이 될 것이다.</li> </ul>

왕도(王道)가 없는 코딩 학습법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프로그래밍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영타 속도 올리고(추천 목표 200 이상) 쉬운 언어(Python 또는 C)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크래치로 재미있게 시작하고 알고리즘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쌓는 것도 좋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다양할 것이다. 누군가는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작한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력이 느는 속도의 차이가 결정된다. 위의 글이 입문자에게 지름길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WIN CLASS



# CONSULTING

금융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 정보를 알아봅니다.



- 20 **Now**  
고수의 한수는 분산투자,  
금과 외화자산을 따로 담는다
- 22 **금융 포커스**  
주요 세목별 세무정보



# 고수의 한수는 분산투자, 금과 외화자산을 따로 담는다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말이 있다. ‘포트폴리오(Portfolio)’의 사전적 의미는 서류가방 또는 자료수집철이라는 뜻이지만 투자론에서는 하나의 자산에만 투자하지 않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둘 이상의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장의 변동성 및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다.



## 분산투자의 종류

분산투자는 크게 보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각 유형별 자산군 내에서도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식이라면 대형주, 중소형주 혹은 성장주, 가치주, 내수주 등으로 구분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다. 부동산이라면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혹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임야 등으로 구분해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산투자가 진정한 포트폴리오 투자일까. 과연 효율적 자산배분 투자란 무엇일까. 무조건 쪼개서 투자하면 성과가 좋을까. 분산투자가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시장 환경에서는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고수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법은 무엇일까. 금융위기 상황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국내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에 최적의 조합을 찾아 자산을 배분해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금융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이 일제히 하락해 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즉 우리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포트폴리오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이는 국내에만 국한해서 투자했다는 점이다. 시야를 조금만 넓게 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다.

## 남들과 조금 다른 고수들의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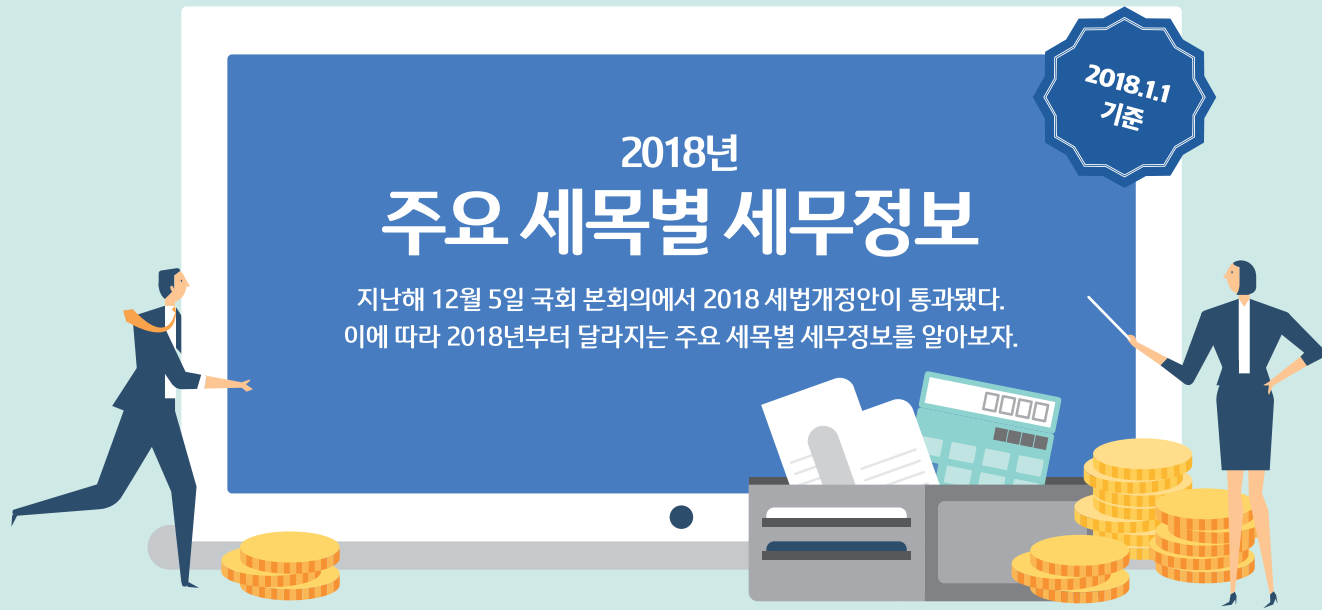
그렇다면 고수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떤 점이 다를까. 똑같은 못 해도 비슷하게 따라 하고 싶다면 금(Gold)과 선진국 통

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공통점은 위기에 빛을 발한다는 점이다. 금 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물 금에 투자하는 비과세 신탁을 추천한다. 또 선진국 통화에 투자하고 싶다면 달러, 유로화, 엔화 등의 외화예금이 좋다. 과거 원화의 변동성을 고려해 볼 때 최근의 원화 강세로 인한 외화예금 투자는 비교적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금(Gold) 투자방법 중 비과세 신탁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로 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이기 때문에 15.4%를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로 내게 된다. 따라서 펀드가 아닌 비과세 금 투자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KRX금 신탁이다. 비과세 투자가 가능한 것은 실물을 받지 않고 신탁통장에 g(그램) 단위로 기록하기 때문이다. 현물로 찾지 않고 신탁계좌에 있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낼 필요도 없고, 금 가격 상승 시 매매 차이만큼은 비과세이다.

최근에는 실물 금을 5만 원의 소액으로도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신탁상품이 있기 때문에 금 적립식 투자의 저변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을 취급하는 판매사에 높은 취급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으니 비용도 저렴해 현명한 투자자에게 인기가 좋다. ‘진정한 자산배분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실천하지 못했다면 외화자산과 대체투자자산인 금에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투자해보자. 이를 통해 기존 원화자산으로만 집중돼서 불안정했던 포트폴리오를 성공 포트폴리오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WIN CLASS





**1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2017	누진공제	과세표준	2018	누진공제
~ 12백만원이하	6%	-	~ 12백만원이하	6%	-
~ 46백만원이하	15%	1,080천원	~ 46백만원이하	15%	1,080천원
~ 88백만원이하	24%	5,220천원	~ 88백만원이하	24%	5,220천원
~ 15억원 이하	35%	14,900천원	~ 15억원 이하	35%	14,900천원
~ 5억원 이하	38%	19,400천원	~ 3억원 이하	38%	19,40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0천원	~ 5억원 이하	40%	25,40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0천원

**2 법인세율**

과세표준	2010,2011	누진공제	2012~2017	누진공제	2018~	누진공제
~ 2억원 이하	10%	-	10%	-	10%	-
2억원 초과 ~ 200억이하	22%	24,000천원	20%	24,000천원	20%	24,000천원
200억초과 ~ 3,000억이하	22%	24,000천원	22%	420,000천원	22%	420,000천원
3,000억 초과			25%	9,420,000천원		

**3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분	세율
개인	
소득세율	14% (15.4%)
세금우대종합저축 세율	9% (9.5%)
장기채권 이자 분리과세 선택	30% (33%)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7.5%)
법인	법인세율 14% (15.4%)

※ ( ) 안은 지방소득세(or 농특세) 포함 세율임.

**4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구분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분양받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포함)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이 안된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승인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사망일)
증여받은 경우	증여로 인한 등기접수일

**5 양도소득세율**

구분		양도소득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① 보유기간 1년 이상	6 ~ 42%	
		② 보유기간 1년 미만	40%	
		③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 대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sup>1)</sup>	일반(1세대 2주택) 일반(1세대 3주택 이상) 1년미만 (20%):1세대3주택이상 (6~42%)+10%(20)%P 와 40%중 높은 세율	
	토지·건물·기타	① 보유기간 2년 이상	6 ~ 42%	
		②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	
		③ 보유기간 1년 미만	50%	
	비사업용 토지	① 일반	일반	16 ~ 52%
			일반	(16 ~ 52%)+10%P
		②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지정지역) <sup>2)</sup>	1년이상 2년미만	(16 ~ 52%)+10%P와 40%중 높은 세율
			1년미만	(16 ~ 52%)+10%P와 50%중 높은 세율
미등기 양도자산		70%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무주택세대 제외)		50%		
주식	① 중소기업의 주식	일반	10%	
		대주주	20%	
	② 비중소기업의 주식	일반	20% 25%(3억초과)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파생상품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유사한 파생상품	10%		
기타자산	특정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 /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6 ~ 42%		

1) 2018.4.1 이후 서울,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라·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적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 세종시  
2) 2017.8.3 이후 서울(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세종시



**6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일반부동산(1세대1주택 제외)	1세대 1주택	비고
3년이상 4년미만	10%	24%	- 등기된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서 해당율을 공제 - 3년미만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미적용
4년이상 5년미만	12%	32%	
5년이상 6년미만	15%	40%	
6년이상 7년미만	18%	48%	
7년이상 8년미만	21%	56%	
8년이상 9년미만	24%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72%	
10년이상	30%	80%	

※ 비사업용 토지도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 7 상속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	50%	4억6천만원



### 9 취득세율

#### (1) 주택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	농특세 <sup>1)</sup>	교육세	합 계		
6억이하	85㎡이하	실거래가	1%		0.1%	1.1%	
	85㎡초과	실거래가	1%	0.2%	0.1%	1.3%	
9억이하	85㎡이하	실거래가	2%		0.2%	2.2%	
	85㎡초과	실거래가	2%	0.2%	0.2%	2.4%	
9억초과	85㎡이하	실거래가	3%		0.3%	3.3%	
	85㎡초과	실거래가	3%	0.2%	0.3%	3.5%	
직접건축 <sup>2)</sup>	법인장부가		2.8%	0.2%(0%)	0.16%	3.16%(2.96%)	
증여	기준시가		3.5%	0.2%(0%)	0.3%	4%(3.8%)	
상속	일반	기준시가		2.8%	0.2%(0%)	0.16%	3.16%(2.96%)
	1주택 감면	기준시가		0.8%		0.16%	0.96%

- 1)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로 농특세가 부과됨.
- 2) 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 별도임

#### (2) 토지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매매	실거래가	4%(3%)	0.2%(0.2%)	0.4%(0.2%)	4.6%(3.4%)
	실거래가	(1.5%) <sup>1)</sup>		(0.1%)	(1.6%)
경매, 공매, 분양	실거래가	4%(3%)	0.2%(0.2%)	0.4%(0.2%)	4.6%(3.4%)
증여	개별공시지가	3.5%	0.2%	0.3%	4%
상속	개별공시지가	2.8%(2.3%)	0.2%(0.2%)	0.16%(0.06%)	3.16%(2.56%)

- ※ ( )안의 세율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임.
- 1) 2년 이상 자경한 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농지 취득시 적용

#### (3) 상가/오피스텔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개인매입	실거래가	4%	0.2%	0.4%	4.6%	
직접건축 <sup>1)</sup>	개인시공	실거래가	2.8%	0.2%	0.16%	3.16%
	법인시공	법인장부가	2.8%	0.2%	0.16%	3.16%
경매, 공매, 분양	실거래가	4%	0.2%	0.4%	4.6%	
증여	시가표준액	3.5%	0.2%	0.3%	4%	
상속	시가표준액	2.8%	0.2%	0.16%	3.16%	

- 1) 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 별도임

### 8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구 분 <sup>1)</sup>	증여재산 공제액 <sup>2)</sup>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
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 <sup>3)</sup> 인 경우 2,000만원)
③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 <sup>5)</sup>
④ 기타 친족 <sup>4)</sup> 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00만원 <sup>5)</sup>

- 1)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하지 않고 수증자 기준으로 위①②③④의 그룹별로 공제
- 2) 증여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기간(10년)동안의 공제액임에 유의
- 3) 만19세 미만
- 4)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5) 2016년 1월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10 종합부동산세

#### (1) 과세대상(인별 합산)

과세대상	과세 기준금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주택공시가격 6억원(단독명1주택 9억원)	80% (예) 주택 총부세 과세표준은 (인별 공시가격합계 - 6억) × 80%	
토지	종합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2) 세율

	과세표준	세율
주택	~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 초과분의 0.75%)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 초과분의 1%)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4,550만원+(50억원 초과분의 1.5%)
종합합산토지	94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억 1,150만원+(94억원 초과금액의 2%)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0.75%
	45억원 초과	1,125만원+(15억원 초과분의 1.5%) 5,625만원+(45억원 초과분의 2%)
별도합산토지	200억원 이하	0.5%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 초과분의 0.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 초과분의 0.7%)

#### (3)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단독명의)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 (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단독명의)

주택 보유 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40%

### 11 재산세

#### (1) 초과 누진세율(=표준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2009.2.6.개정)
주택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분의 0.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1.5억원 초과분의 0.25%)
종합합산토지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분의 0.4%)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분의 0.3%)
별도합산토지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분의 0.5%)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분의 0.3%)
건축물 (주택 제외)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분의 0.4%)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건축물	4%
	시지역 안 일정한 공장 건축물	0.5%
	그 외 건축물	0.25%

#### (2) 분리과세 대상 세율

구분	대상	세율
분리과세 토지	농지, 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공장용지, 공공목적 등 토지	0.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토지	4%
기타	별장(부속토지 포함)	4%(수도권외지역 2009년까지 2%)
	고급선박	5%
	위 이외의 선박	0.3%
	항공기	0.3%





# LIFE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문화 · 예술 · 여행 · 인문 관련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28 **Premium People**  
이창혁 미팩토리 창업자
- 34 **테마가 있는 여행**  
인도네시아 발리
- 42 **실버 이야기**  
여성 갱년기 vs 남성 갱년기
- 46 **트렌드로 읽는 경제**  
몰링에 빠지다
- 50 **The Master**  
봄바니에 장준영 대표
- 56 **취미 더하기**  
더 큰 세상을 보자, 드론
- 60 **문화가 있는 오늘**  
따뜻한 봄날에 만나는 전시 · 공연
- 62 **도서 소개**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문장들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미팩토리 3단 돼지코팩에 대한 소문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화장품에 문외한인 사람도 대중에게 3단 돼지코팩의 존재감을 알린 체험 영상을 SNS로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야 SNS 마케팅이 자연스럽지만, 미팩토리 창업 당시인 2014년만 해도 다른 매체를 활용하지 않고 오직 SNS로만 마케팅을 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에 가까웠다. 하지만 대중의 라이프스타일과 필요를 관통한 마케팅은 '적중'했다. 뉴미디어마케팅 1세대로 통하는 이창혁 미팩토리 창업자를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기회를 잡다



이창혁  
미팩토리 창업자





### 뉴미디어마케팅의 성공 신화

언제부터가 SNS를 통해 ‘피르가즘’이라는 신조어가 돌기 시작했다. 이는 ‘피지’와 ‘오르가즘’의 합성어로, 피지가 쭉쭉 빠져나올 때의 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신조어 탄생 배경에는 미팩토리 3단 돼지코팩이 있다. ‘피르가즘’은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입소문을 내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출시 1년 4개월 만에 1,000만 장 돌파 기록을 세운 그야말로 대박 행진. 오프라인 매장과 광고 홍보 없이 오직 뉴미디어마케팅으로만 이룬 성과다.

미팩토리는 이창혁 이사가 다른 공동 창업자와 함께 2014년 9월에 설립한 회사다. 3단 돼지코팩을 필두로 화장품으로 유명해졌지만, 엄밀히 말해 화장품 기업은 아니다. 실제 제품을 연구·제조하기보다 좋은 제품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브랜딩하고 마케팅할 것인지 고민한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3단 돼지코팩이다.

“사실 처음에는 코팩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함께 발매했습니다.

공동 창업자들끼리 제품 테스트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보기도 했죠. 그중 코팩의 효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피지가 나오는 장면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묘한 쾌감을 느낄 수 있었죠.”

사용 전후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코팩 후기 영상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요소가 많았다. 신생 화장품 업체들이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미팩토리는 온라인상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아 역으로 대형 유통 채널의 러브콜을 받았다. 2017년에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했다. 설립 4년 차인 지금 미팩토리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며 내실을 다지는 중이다.

### 안정보다 도전으로 찾은 행복의 길

이창혁 이사는 성공한 30대 사업가로 꼽힌다. 처음부터 사업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한국외대 재학 중 미국 미시간주립대 회계학과로 유학을 떠날 때만 해도 그는 회계사를 꿈꿨다. 하지만



“만약 저와 역량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 창업했다면 부딪히는 지점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각자 지닌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면을 빠르게 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문득 ‘회계사로 살면 행복할까?’ 하는 근원적 질문에 부딪혔다.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진로 대신 자신이 행복한 길을 찾기로 했다. 이는 이창혁 이사. 미국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던 중 스포츠용 화장품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제가 취급했던 품목이 준비 운동에 도움을 주는 워밍업 크림이었어요. 국내에 없던 카테고리라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했죠. 초기에는 그냥 ‘제품이 좋으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습니 다. 마케팅이 뭔지도 전혀 몰랐고요.”

스포츠용품 박람회 열릴 때마다 꾸준히 참석하면서 제품을 알렸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다행히 어느 정도 이익을 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거래처에서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혹독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미팩토리를 창업할 때는 온라인 마케팅과 앱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공동 창업자와 동업을 결심했다. 흔히 ‘동업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창혁 이사는 협업의 시너지를 믿었다.

“만약 저와 역량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 창업했다면 부딪히는





지점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각자 지닌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면을 빠르게 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창혁 이사는 창업 직후 2년간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다른 공동 창업자에게 대표 자리를 넘기고 마케팅 이사직을 맡고 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내린 결론이다.

### 변화와 성장은 현재진행형

젊은 나이에 창업자로 나서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냈지만 이창혁 이사에겐 특권 의식이 없다. 실제 회사 운영도 경영자 중심이 아닌 구성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각 부서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한다.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팀장들이 주도해서 팀원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합니다. 저는 직원 개개인이 미팩토리라는 회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스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다른 곳에 갈 때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면 좋겠죠. 저 역시 비슷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성장하고 싶어요.”

3단 돼지코팩으로 존재감을 알린 미팩토리는 코팩 외에도 색조 화장품, 바디미스트, 생활용품, 재생크림 등 다섯 개의 주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미팩토리가 파고드는 곳은 ‘틈새시장’이다. 기존에 시장에 출시된 브랜드에서 느끼는 소비자의 아쉬움을 파악해 미팩토리의 제품화에 반영한다.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지만 제품 기획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이 나올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 품평회를 하고 제품을 개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는 점은 ‘시의성’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원할 때 출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뉴미디어마케팅으로 성공했지만, 그것이 영원한 성공 공식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SNS는 이 시대를 관통한 하나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운 좋게 그 흐름을 잘 탄 거죠. 제안의 경로가 되는 플랫폼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았지만 변하지 않는 기준은 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파악하고 긴밀하게 대응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이창혁 이사는 개인의 탁월함이 아닌 동반자의 열정과 지혜를 믿으려 한다. 이처럼 미팩토리의 성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WIN CLASS



“SNS는 이 시대를 관통한 하나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운 좋게 그 흐름을 잘 탄 거죠. 제안의 경로가 되는 플랫폼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 사람, 신, 예술이 어울려 빛어낸 신비의 섬

## 인도네시아 발리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에 위치한 발리. '신들의 섬', '지구상 마지막 낙원' 등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여행자들에게 사랑받아왔다. 아름다운 풍경은 섬 곳곳에 남아 있는 힌두교 문화와 어울려 한층 신비로운 풍경을 빛어낸다. 한적한 해변과 어우러진 고급 리조트는 최상의 휴식을 보장한다.



# iNDONESiA



### 예술의 중심, 발리

발리 내륙에 위치한 '우붓'(Ubud)은 발리의 토속적인 정취와 울창한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발리 예술과 문화의 중심이기도 한 우붓은 발리 말로 '의약'을 뜻하는데 수 세기 동안 치유 에너지가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현지 예술가들은 물론 외국의 예술가들도 이곳에서 지내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의약품 대신 예술작품이 현대인을 치유하고 있는 셈이다.

우붓에서의 발리 예술은 16세기, 당시 이슬람의 침략을 피해 발리로 건너왔던 왕족들이 예술인들을 함께 데리고 오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예술 마을 우붓'이 탄생하게 된다.

1920년대 기얀야르 영주이자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최대 협력자였던 수카와티 부자는 우붓 왕궁 한쪽에 숙박 시설을 마련하고 유럽 예술가들을 불러들였다. 당시 발리에 초대된 예술가는 독일인 화가 월터 스피스(Walter Spies)와 네덜란드 화가 루돌프 보네(Rudolf Bonnet), 특히 월터 스피스는 1927년부터 1940년까지

13년간 우붓에 살면서 발리 미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화가 이외에도 음악가, 언어학자, 무용가, 연출가이기도 했던 그는 현재 공연되는 발리의 유명한 '계짜 댄스'와 '바롱 댄스'를 확립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구미의 잡지에 발리의 회화와 사진을 발표하며 발리를 세계에 알렸던 그는 서구의 예술가와 학자들이 우붓에 자리를 잡게 만든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우붓거리를 걷다 보면 우붓이 예술의 도시라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500여 m정도 거리에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즐지어 서 있다. 이름난 미술관도 예닐곱 곳 있고 모퉁이마다 작은 갤러리들도 자리하고 있다. 조금만 걷다 보면 우붓을 왜 '발리의 몽마르트르'라고 부르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들 갤러리들은 저마다 독특한 그림을 내걸고 여행객들을 맞이한다. 열대 특유의 강렬한 색감으로 시선을 모으는 작품들도 있고 발리 자연이나 사원, 동물, 여인 등을 소재로 한 작품도 있다. 난해한 추상 회화도 눈에 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아서 세심히 둘러보면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독특한 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정교한 목각과 세공품으로 가득한 상점들의 거리를 걷고 있노라



면 서울의 인사동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최근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분위기가 다소 소란스러워졌지만 조용한 뒷골목 등은 여전히 다정하고 매력적이다.

“지금도 인도네시아 현지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예술가들이 이곳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도 몇 명 있어요.”

우붓 갤러리에서 만난 큐레이터 '리사(Lisa)'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함, 그 자체가 발리 그림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초기 발리의 회화는 신화, 전설, 악마와 신, 힌두의 서사시 등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현실적인 기법과 양식이 특징이었죠. 지금은 여기에 서양화의 기법을 받아들여 한 층 다채로워졌습니다. 발리의 화가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화면을 빈틈없이 꽉꽉 채우죠.”

발리 회화에는 크게 우붓 양식과 바투안 양식이 있는데, 우붓 양식은 발리의 아름다운 자연, 사원 풍경, 농사를 짓거나 과일을 따는 풍경 등을 주로 그린다. 바투안 양식은 우붓 남쪽의 바투안 마을에서 그려진 서양화 스타일이다. 발리의 신화적인 세계를 표현



하며, 밝고 원색인 우붓 양식과는 달리 검은색과 모노크롬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뚜안 양식 또한 서양화의 원근법과 음영법을 독창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붓에서 꼭 들러야 할 곳은 네카 미술관이다. 우붓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한, 발리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이다. 회화 수집가인 네카가 설립했다. 발리의 화가, 인도네시아 화가, 발리에서 활동한 외국인 화가들의 그림들이 시기별로 7개의 전시관에 걸려 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회화와 발리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흑백사진도 전시돼 있다. 네카 미술관 외에도 스페인 출신의 화가가 만든 블랑코미술관, 우붓에서 '서양미술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아궁 라이나가 지은 아르마 미술관 등도 돌아볼 만하다.

화랑과 공방을 지나다 보면 걸음은 자연스레 재래시장에 닿는다. 코코야나무로 만든 식기며 대나무로 짠 가방, 울긋불긋한 열대과일 등이 발목을 붙잡는데 가격도 적당하다. 어느 관광지의 시장이 그렇듯 부르는 게 값이지만 두 눈 딱 감고 흥정에 돌입하면 1/4 정도의 가격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

건다 지치면 2층짜리 카페에 자리를 잡고 발리산 커피와 함께 거리의 풍취를 음미해보는 것도 좋다. 메인 스트리트에 자리한 사라 스와티 사원은 사원 앞의 연못이 아름다운 사원이다. 사원에 있는 탑 상층부에 불교를 상징하는 만(卍)자가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원 옆에는 스타벅스와 '카페 로터스'라는 카페가 있어 지친 다리를 쉬어 가기 좋다.

**발리에서 신과 함께**

발리는 '신들의 섬'으로 불린다. 자그마치 2만여 개의 힌두사원이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지만 발리에서만 유일하게 힌두교를 신봉하고 있다. 발리를 걷다 보면 발길 닿는 곳마다 신을 만난다. 우리나라의 도깨비와 비슷하게 생긴 바롱신도 있고, 독수리처럼 생긴 가루다신 조형물도 볼 수 있다. 어떤 조형물은 성인 키 몇 배는 될 만큼 커다랗고 어떤 조형물은 아기 주먹보다도 작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화한 것은 15세기다. 동부 자바지역의 힌두 왕조인 마자파히트 왕조가 몰락을 하면서 힌두교를 믿던 왕족과 승려, 예술가들이 발리로 피신했다. 힌두 이주민이 발리 섬의 정치, 경제, 종교의 주도권을 잡고 힌두교를 전파했는데 지금은 93%에 달하는 인구가 힌두교를 믿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슬람을 믿는 자바 섬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발리 거리를 걷다 보면 집이나 가게 앞, 사당 등에 야자수와 과일, 꽃으로 치장한 바구니가 놓인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짜낭'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짜낭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발리인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수많은 사원들 가운데 꼭 가봐야 할 사원이 발리 시내에서 우붓으로 가는 길, 바뚜안 마을에 자리한 '푸세'라는 힌두사원이다. 사원은 1022년에 건립됐다. 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리에 둘러 입는 옷인 '사롱'을 입어야 한다. 입장료는 따로 없고 기부함에 약간의 돈을 넣으면 된다.

사원 입구에는 두 개의 석문 기둥이 갈로 자른 듯 우람하게 서 있다. 좌우로 뽀족하게 대칭인데 '찬디 분타르'라고 부른다. 찬디 분타르의 오른쪽은 삶과 광명, 왼쪽은 죽음과 어둠을 상징한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좌우가 반대가 되므로 선과 악이 바뀐다. 이는 선과 악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힌두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사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아마도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일 것이다. 친절한 미소로 여행자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자수 사이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빛,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레스토랑과 세련된 풀빌라로 가득한 곳이 바로 발리다.

원 안엔 조각이 화려한 석탑 파두락사, 수미산을 표현한 메루 등의 볼거리가 많다. 조각이 문외한인 여행자들에게도 아름답다.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정교한 조각 솜씨에 탄성이 나온다.

**노을빛 물드는 낭만 해변**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아마도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일 것이다. 친절한 미소로 여행자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자수 사이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빛,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레스토랑과 세련된 풀빌라로 가득한 곳이 바로 발리다.

발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간직한 곳이다. 특히 쿠타(Kuta) 해변은 현대적인 호텔과 멋진 부티크, 야외 식당과 바, 서핑 용품 매장, 환전소 등이 5km에 걸쳐 늘어서 있어 늘 여행객들로 북적인다. 쇼핑 마니아라면 이곳에서 샌들, 수영복, 서핑용품, 기념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쿠타의 진면목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 지나간 후 밤이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날 수 있다. 시끌벅적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곳곳에서 발리댄스 공연이 펼쳐진다. 태국 방콕의 카오산로드나 푸켓 파퐁비치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열기는 이에 못지않다. 쿠타 해변의 명성을 듣고 이곳을 찾은 이들은 다소 실망할지도



**여행 정보**

- ✈**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www.garuda-indonesia.co.kr)이 '인천-발리' 직항노선을 매일 1편씩 주 7회 왕복 운항한다. 이민국 직원들이 항공기에 탑승해 기내에서 입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착륙과 하선 전에 입국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비행기 탑승 전 '도착 비자 서비스' 카운터에서 미화 25달러를 내고 미리 비자를 구입해야 한다.
- 💰** 발리는 1시간 한국보다 느리다. 인도네시아의 화폐는 루피아(Rupiah, IDR)다. 1만루피아는 약 897원이다. '리젠트 발리'(http://www.regenthotels.com)는 2014년 3월 개장한, 발리 동부 해안 사누르 지역에 있는 6성급 럭셔리 호텔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풀빌라 등 120개의 객실을 운영한다. 수영장과 스파시설을 갖추고 있다. 요리사가 직접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조리를 시연하고 투숙객이 직접 만들어보는 '쿠칭 클래스'도 진행한다.
- 🍖** 1일 기준 디럭스 스위트룸은 약 29만원부터, 풀빌라는 약 56만원부터. 바비 굿링 이부오카 하우스(Babi Guling Ibu Oka)는 새끼 돼지를 통구이한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 기름지면서 바삭한 돼지껍질과 쌀밥의 조합이 환상적이다.

모른다. 쿠타의 바닷물은 생각했던 것만큼 투명하고 깨끗하지 않다. 지중해나 피지의 바닥이 흰히 비치는 투명한 바닷물을 상상했다가는 이내 실망한다. 그렇다고 순백의 모래가 끝없이 펼쳐지는 절경의 해안도 아니다. 그런 해안을 꿈꿨다면 오히려 필리핀 보라카이가가 더 낫다. 어느 것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이 해변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거침없이 몰아치는 파도 때문이다. 호주와 유럽 출신의 서퍼들이 쿠타의 파도에 반해 하나둘 몰려들었고 마침내 쿠타는 세계 최고의 서핑 포인트가 됐다. 쿠타 비치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친 파도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다. 누사두아(Nusa Dua) 해변은 쿠타 해변에 비해 한적하고 로맨틱하다. 코코넛 나무가 둘러쳐진 3.5km의 백사장을 따라 야외 테이블을 갖춘 레스토랑들이 즐비하다. 또한 고급리조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방해받지 않는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짐바란(Jimbaran) 비치 역시 아름다운 일몰을 배경으로 로맨틱하게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누르(Sanur) 해변은 발리에서 처음으로 해변호텔이 지어진 곳이다. 지금은 전성기를 지나 쿠타와 누사두아 해변의 명성에 가려진 듯하지만 최근 들어 옛 명성을 회복하고 있다. 여행자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이곳은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신만

의 편안한 시간을 가지려는 여행객들이 더 선호한다. 발리에서 보낸 며칠 동안 사누르(Sanur) 비치에 자리한 리조트에 머물렀다. 사누르 비치는 발리 남부에 자리한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으로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다. 리조트에서 나와 100m만 가면 만나는 해변에서 온종일 뒹굴며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해변을 걸었고 책을 읽었고 차가운 맥주를 마셨고 현지인들과 미소를 담은 눈인사를 나눴다. 서울에서의 번잡한 일상은 깨끗이 잊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어느 새벽, 해변을 걷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내 안의 무언가가 뭉클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건 뭔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었다. 정면으로 마주한 눈부신 햇살 앞에서, 나는 문득 내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다. '없어도 되는 것들을 부여잡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버리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행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가 보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수평선 위쪽으로 해는 한참 높이 떠올라 있었고, 나는 햇볕에 데워진 모래밭 위에 맨발로 서 있었다. WIN CLASS





## 여성 갱년기 vs 남성 갱년기

갱년기는 남녀를 불문하고 일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한다. 보통 여성은 폐경, 남성은 전립선 기능저하를 통해 갱년기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질병이 아닌 자연적인 신체 변화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갱년기의 주요 증상과 극복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여성의 경우 생리를 멈추는 폐경이 나타난 후의 약 1년을 '갱년기' 또는 '폐경이행기'라고 하며 이는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발생한다. 남성은 여성과 달리 특정한 시작점 없이 남성호르몬이 점차 줄어들며 갱년기가 나타난다. 특히, 잦은 술과 담배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갱년기가 보다 빨리 나타나게 된다. 여성들의 경우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것, 안면홍조, 우울증 등이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며 수면장애, 얇은 기억장애, 골다공증도 갱년기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성욕 감퇴와 원인을 찾기 어려운 만성피로, 무기력 증상으로 갱년기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40~50대에 증상이 나타나며 개인차가 존재한다.

### 중년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갱년기증후군

갱년기증후군이란 폐경 전후로 생기는 여러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폐경기증후군', '폐경증후군'으로도 불린다. 평균 49~51세 전후로 폐경이 되는데 길으로는 단지 생리가 멎는 것이지만 몸속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 여성건강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난소는 제 기능을 잃고 조그맣게 쪼그라들어 난소에서 만들어내던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estrogen)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리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심장질환, 골다공증, 치매, 요실금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 • 여성 갱년기증후군 증상 •

#### 초기



##### 1. 신체적 자각증세

- 월경이 불규칙해진다.
- 얼굴과 가슴 부위가 화끈거리는 열성홍조(번열)와 함께 식은땀이 나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 초조감을 느낀다.
-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밤에도 여러 번 화장실을 찾는 등 방광염, 요도염의 증세가 나타난다.
- 성관계시 불편감이나 통증을 느끼고 외음부의 가려움증이 있다.
- 손발가락, 팔목, 무릎, 발목 관절통과 관절경직 등 원인 모를 전신 통증을 느낀다.
- 원인 모르는 두통, 어지러움 등의 자율신경계 기능이상 나타난다.
- 상복부의 팽만감과 체중증가가 동반된다.
- 이외 여성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 2. 정신적 변화

- 괜히 불안을 느끼며 신경이 예민해진다.
-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며 만사가 귀찮아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 수면 장애가 동반되며 생활력 감소가 올 수 있다.

#### 후기



##### 1. 심근 허혈증 및 동맥경화증

- 여성호르몬은 지질대사에 관여하여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킴으로써 폐경 10년 후 여성에게서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 2. 골다공증

- 골다공증이란 뼈의 구성성분이 점차 소실되면서 뼈 속에 많은 구멍이 생겨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는 질환으로, 폐경이 되면 급격한 골밀도의 감소가 일어나 같은 연령의 남자보다 10배 정도의 골밀도 소실을 보이게 된다. 폐경 후 여성에서 대부분 다양한 정도의 골다공증을 보이는데 심한 경우 여러 부위의 골절을 유발할 수 있다.







**조용해서 더 무서운 남성 갱년기**

갱년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성을 떠올리지만 남성에게도 엄연히 갱년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40대부터 뼈, 근육, 성기능 등의 남성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정신 및 대인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무기력하고 약한 남성으로 변하는 것을 '남성갱년기'라고 한다.

남성갱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하고 중요한 증상은 성욕저하 및 발기력 저하,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 및 무기력증이다. 또한 아랫배가 자주 나오고 근육량과 힘이 떨어지며, 뼈마디가 쭈시고 약해졌다거나 가슴이 여자처럼 변하고 수면이 잘 자라지 않는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면 남성갱년기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남성갱년기 진단은 크게 세 가지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자가진단 증상설문지와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 확인하고, 둘째로 혈액검사로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 여부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여러 증상들의 명확한 원인이 되는 다른 질병이 없음이 확인된다면 남성갱년기로 진단할 수 있다.

남성호르몬 저하가 남성갱년기의 원인이므로 부족한 남성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호르몬을 보충하면 골밀도 증가, 근육량과 힘의 증가, 전신 신체상태 호

전, 성욕 증가, 행복감 및 기분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호르몬 보충요법에는 테스토스테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구약제, 경피 흡수제, 주사제 등이 있는데 위에 언급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면 무호흡증, 적혈구 증가증, 전립선비대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남성갱년기는 여성갱년기와 마찬가지로 치료기간의 기준은 없으나 남성의 경우 질병의 치료보다는 삶의 만족도 및 질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에서 장기간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갱년기치료법**

갱년기 치료는 크게 호르몬 치료와 식사 요법, 운동 요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인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적절히 치료해야 한다. 호르몬 대체 치료를 하면 안면 홍조나 생식기계 위축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우울증 같은 정신심리 증상도 완화할 수 있다. 갱년기로 진단, 치료를 시작한 후라면 1년마다 치료 전 받았던 기본적인 검사를 반복 시행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전문의와의 상담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WIN CLASS

**• 갱년기 자가진단 CHECK LIST •**



-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난다.
-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여드는 느낌이 난다.
- 잠을 잘 못 이룬다.
- 쉽게 피곤하고 힘이 없다.
- 괜히 불안해지거나 우울한 느낌이 든다.
- 건망증이 심해졌다.
- 소변을 자주 보거나 요실금 증상이 있다.
- 질 분비물이 없어 건조하다.
- 성욕이 거의 없거나 부부관계시 불편하다.
- 관절 통증이 있거나 손발이 저리고 쭈신다.



- 최근 성욕이 줄었다.
- 무기력하다.
- 근력 및 지구력이 감소했다.
- 키가 다소 줄었다.
- 삶에 의욕과 재미가 없다.
- 슬프거나 짜증이 많이 난다.
- 발기력이 감소했다.
- 조금만 운동해도 쉽게 지친다.
- 저녁 식사 후 졸음이 잦다.
- 업무능력이 감소했다.

**진단** 위의 항목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갱년기를 의심해볼 수 있다.

**TIP**

**갱년기예방**

- 평소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 금주, 금연,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의 생활습관 교정하기
-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한 적절한 체중 유지하기
- 지속적인 사회활동이나 나만의 취미활동 찾기
- 자신의 감정과 우울감 등에 대해 가족과 자주 대화하기
-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전문의에게 상담받기





# 몰링에 빠지다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뜨는 '몰링'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한 증권기업에 근무하는 한모(28·여) 씨는 최근 일주일에 한 번꼴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스타필드 고양'을 찾는다.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로 주로 영화를 보고 쇼핑을 즐기는 한 씨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 고양시를 오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스타필드 고양에서는 유명 맛집부터 스트리트 쇼핑몰은 물론, 대형 스크린 영화관까지의 데이트 코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주말마다 교통이 복잡한 서울에서의 데이트로 이동 및 대기시간 등을 소모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던 한 씨는 당분간 남자친구와 이곳을 구석구석 더 즐기기로 했다. 몰링족의 등장은 최근 여가 및 소득 증가와 맞물려 복합 상업 시설이 몰 형태로 대형화하면서 시작됐다. 교통 환경 등 입지가 우수한 대형 상업시설이 식당부터 영화관, 서점, 광장, 이벤트장, 문화센터 등 각종 즐길 거리를 갖춰자 굳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고 쇼핑과 여가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몰리는 것이다.

몰링족이 즐겨 찾는 국내 대표적인 복합 쇼핑몰로는 잠실 '롯데월드몰'과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영등포 '타임스퀘어', '스타필드 고양'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개장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월드몰'은 몰링족의 성지로 불린다. 이미지 기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몰링'이라는 해시태그(#)를 넣어 검색하면 등장하는 사진 대부분이 이곳을 배경으로 한다. 국내 최고층 건물(123층)로 호텔과 전망대, 수족관, 영화관, 면세점, 서점, 콘서트홀, 광장 등 몰링족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기준 누적방문객이 1억 명을 넘어섰으며, 내국인을 넘어 중국인 등 외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다.

'몰링(Malling)'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몰링이란 대형 상업시설에서 외식이나 쇼핑, 영화감상 등 여가활동을 동시에 해결하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 이를 즐기는 이들을 '몰링족(族)'이라고 부르는데, 20~30대부터 최근에는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스타필드 코엑스몰

# Mallina





왼쪽부터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코엑스몰, 센텀시티몰

**몰링족 사로잡기 위해 유통업계도 분주**



최근 몰링족이 유통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자 업계도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처럼 여러 점포를 늘어놓는 형태가 아니라 쇼핑몰과 식당, 문화시설 등을 고객 동선을 고려해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 단순히 고객이 둘러보는 상업시설에서 탈피해 체험하거나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주력하는 추세다. 실제로 스타필드 고양은 개장 이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고객 동선과 체류시간, 매장 콘셉트까지 직접 관여하는 등 몰링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쇼핑과 함께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소비 형태가 큰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복합쇼핑몰이 단순 쇼핑시설이 아닌, 그야말로 복합적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추는 등 몰링족에 맞춰 진화해가고 있다”고 말하며 “당분간 유통업계 트렌드가 소비가 아닌 문화로 변화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집객효과와 함께 매출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유통업계가 연예인 팬 사인회와 미니 콘서트 등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모습이다.

**정부 규제에 복합쇼핑몰 성장세 제동**



몰링이라는 트렌드를 등에 업고 복합쇼핑몰이 최근 급성장하자 정부와 여당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씩 의무휴업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차세대 성장동력

으로 주목받던 복합쇼핑몰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게 되면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법안은 20여 개에 달한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유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일수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이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법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전통시장 인근 유통시설 출점 원천봉쇄, 출점 시 인접 지자체와 합의 등이 골자다. 규제가 현실화하면 당장 ‘스타필드 고양’ 등 복합쇼핑몰은 매월 주말 2회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이 골목상권의 매출 신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앞서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효과가 거의 없고 소비자 권익만 침해한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곳당 약 5,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합쇼핑몰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소상인들은 여전히 대형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최근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의무휴무에 대해 “더욱 확대 및 강화해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 가족을 타깃으로 한 복합쇼핑몰**



더욱이 복합쇼핑몰은 20~30대 젊은 층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쇼핑과 함께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소비 형태가 큰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복합쇼핑몰이 단순 쇼핑시설이 아닌, 그야말로 복합적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추는 등 몰링족에 맞춰 진화해가고 있다”고 말하며 “당분간 유통업계 트렌드가 소비가 아닌 문화로 변화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시니어 세대까지 타깃으로 삼고 있다. 복합쇼핑몰을 찾는 20대 커플은 식사를 시작으로 명품 쇼핑과 영화, 미술관, 스파, 카페, 레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즐길 거리로 데이트 시간을 보낸다. 10대 자녀와 방문하는 30~40대 가족 단위 고객도 쇼핑과 물놀이, 오락, 공연 등을 함께하며 일상을 뒤로 한 채 짧은 가족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과 힐링·문화생활, 의료서비스 등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 세대에게도 몰링은 예외가 아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연장자를 뜻하는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를 겨냥한 미용실과 문화센터, 골프클럽 등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시니어 세대에게도 몰링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WIN CLASS



스타필드 하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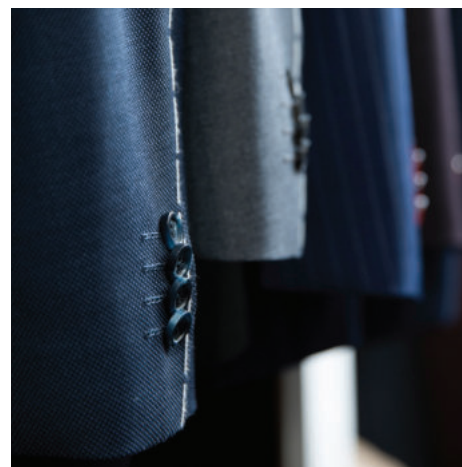




Bom Bouriere

## 양복과 함께 걸어온 외길 52년 봄바니에 장준영 대표

서울 명동 롯데호텔 지하 한쪽에 자리한 수제 양복점 봄바니에.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듯 보여도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름 석 자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들이다. 최고의 경지는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라도 하듯, 그곳에는 중후한 기품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소박한 인사로 취재진을 맞이하는 그의 표정에서 외길 52년 양복장인의 인생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 먹고 살기 위해 택한 일 '양복'

1960년대 온 국민이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 먹고 살길을 찾기 위해 양복 일을 시작한 봄바니에의 장준영 대표. 그 역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기술 하나 배우면 먹고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한국폴리텍대학의 전신인 시립삼성직업훈련원에서 양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아니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저 먹여주고 재워줄 곳이 필요했기에 그의 선택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갔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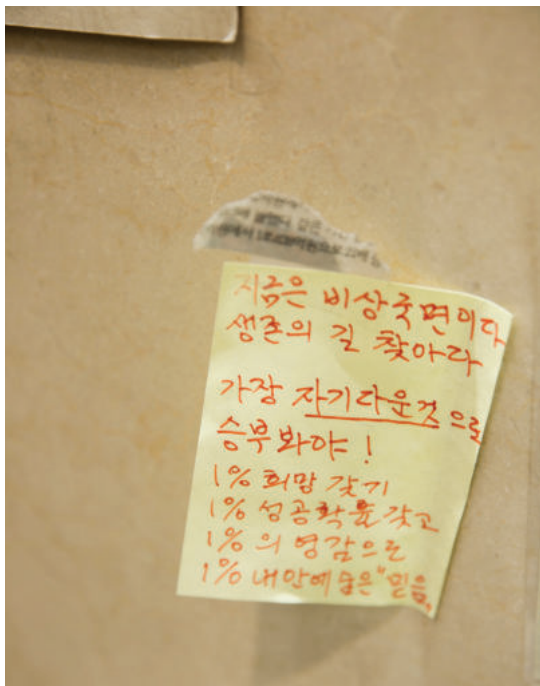
"양복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한 것이니까요."

1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복점에 취직한 그는 누구보다 악착같이 일을 하였다. 양복점에서 일하던 기술자 선배들이 그의 손을 보고 "네 손은 양복을 만들 손이 아니다. 가서 농사나 짓는 게 낫겠다."는 말을 하며 비아냥거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양복에 대한 비전보다는 먹고 살길에 대한 걱정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년간 양복점에서 일을 하다가 1971년 지금의 봄바니에의 전신인 코스모스양복점에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곳이 코스모스였다. 취업 후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에만 몰두했다. 매일같이 근무시간 외 7시간 이상을 더 일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다. 그저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반세기 동안 옷 만드는 일을 해왔지만 지금도 옷 치수를 재고 나면 속옷이 흠뻑 젖는다고 한다. 마치 씨름 한 게임 정도 한 사람처럼 기운이 쪽 마친다고. 그만큼 양복은 치수를 재는 일이 가장 우선시되기에 온 힘을 다해 치수를 재는 것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장 눈에 들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였다. 그렇게 7년간 일을 하다가 마침내 코스코스양복점을 인수하게 되었다. 사장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그에게 양복점을 인계한 것이다. “사장님은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때문이었죠. 반면에 저는 열심히 안 하면 쫓겨날까 봐 밤낮없이 일을 한 것인데요. 참 아이러니 하지만 그렇게 보낸 7년의 시간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결정적인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

양복 인생 52년 지금은 자타 공인 최고의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도 양복 만드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장준영 대표. 크리스천인 그는 매일 아침 테스트 룸에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그만큼 옷 만드는 일이 어렵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52년 양복 일을 해왔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드는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옷을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라며 겸손히 말을 건넨다. 이름 석 자만 대도 알 만한 사람들이 찾는 양복점. 역대 IBK기업은행의 은행장들도 찾아와서 양복을 맞췄다는 양복점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대답이다.

반세기 동안 옷 만드는 일을 해왔지만 지금도 옷 치수를 재고 나면 속옷이 흠뻑 젖는다고 한다. 마치 씨름 한 게임 정도 한 사람처럼 기운이 쪽 마친다고. 그만큼 양복은 치수를 재는 일이 가장 우선시되기에 온 힘을 다해 치수를 재는 것이다.

“옷은 사람의 날개이자 피부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잘 만들어야 저를 찾아온 손님에게 좋은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잖아요.”

양복 일에 관한 한 최종 검증까지 받은 그이지만 더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아침을 열고 있다. 손님에게 옷을 만들어 주고도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하고 아



직도 고민한다는 그는 “‘좋은 옷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객의 인사가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보람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라며 웃는다.

양복점 한쪽에는 그가 걸어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치수를 재고 재단을 하고 바느질하는 데 필요한 도구 중 상당수는 그가 직접 제작한 것들이다. 50년을 넘게 해온 만큼 ‘내 손에 편한 물건이 내 일에 가장 적합한 물건’이라고 할 만큼 그에게 소중한 물건들이자, 그의 애장품 1호다. 그는 그 소품들을 보며 지난 기억을 회상하곤 한다.

#### 1억을 벌어도 점심값이 없었던 원칙주의자

양복을 만드는 장인인 동시에 양복점을 경영하는 사장인 장준영 대표는 회사 경영에 대한 마인드도 양복을 만드는 일 만큼이나 확고하다. 한 달에 쓸 돈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외에는 절대 쓰지 않는다. 그로 인한 에피소드도 그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1980년대 어느 날인데 현금으로 1억 원이 넘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양복값이 10만 원이 채 안 되던 시기니까 저에겐 어마어

마한 돈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점심 먹을 돈이 없지 뭐니까. 한 달에 쓸 돈을 미리 정해 놓은 제 원칙을 지켜야 했기에 그 날 점심도 못 먹은 것이죠.”

그의 행동이 결코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일화다. 그는 그런 마인드로 회사를 지금껏 이끌어 오고 있다. 젊은 시절 그의 롤모델이 되었던 선배들도 하나둘씩 양복 일을 그만두면서, 소위 ‘잘 나가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업계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결국은 양복 일을 포기하고 그만두게 된 것이다. 혹독한 현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도 결국 철칙같이 지켜온 그의 마인드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도 그는 “오늘 할 일이 제게 주어진다면 그만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어떤 옷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일 할 수만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

#### 좋은 옷을 고르기 위해서는

좋은 옷을 고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묻는 질문에 장준영 대





표는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옷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손님들의 체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지요.”라고 답한다. 그 역시도 처음에는 손님들이 고른 취향에 따라 옷을 만들어 주지만, 단골이 되면 옷을 고르는 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유명인사들이 많이 찾는 양복점인 만큼 그들에게 조언을 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는 소신있게 조언을 건넨다.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했는데, 그 말에 흔쾌히 승낙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 만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저를 믿고 제게 맡겨 주셨다가보다는 한 번 속는 셈 치고 맡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옷이 너무 잘 맞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생전 전화 한 번 안 하던 분이데...” 옷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친 장인의 무게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 수제를 고집하지 않는 수제 장인

양복 업계 기술자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하는 장준영 대표는 기계로 수제 양복의 느낌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에 대한 구상을 마치고 이제는 실험 단계를 넘어 하나둘씩 재현해가고 있다. 봄바니에의 옷을 전국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다.

“기계로 만든 옷이라고 결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 옷을 입고 있거든요.”

지금은 실전 단계에 돌입하였고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봄바니에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매뉴얼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국으로 매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양성이 시급한 만큼, 기술자에 대한 훈련 과정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저렴한 가격에 봄바니에 제품을 전국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비싼 옷은 좋고 싼 옷은 나쁘다는 인식도 바꾸고 싶고요. 요즘 젊은 CEO 중에는 비싼 옷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기계로 만든 옷을 주로 구입하시고 만족하시죠.”

그의 계획은 거창한 듯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소박하다. 수제 양복 52년 인생을 살아왔지만 수제를 고집하지 않는 마인드, 그의 마인드가 있기에 그의 앞길은 더욱 단단해 보인다. WIN CLASS



양복 업계 기술자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하는 장준영 대표는 기계로 수제 양복의 느낌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봄바니에의 옷을 전국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다.





## 더 큰 세상을 보자, 드론



# DRONE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선보인 인텔사의 드론으로 만든 '오륜기'는 드론이 왜 4차 산업혁명의 신호탄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1,500개의 드론이 하늘을 수놓은 멋진 광경은 놀라움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각의 조종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조종사가 미리 짜 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군집비행'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 드론의 무한한 활용 능력

드론이 뜬 것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된다. 드론은 항공촬영에서 시작해 방재, 감시, 측량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세계 드론 시장은 60억 달러(6조 8697억 원)에 달하고, 2020년까지 112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704억 원 규모다. 정부도 2022년까지 20배인 1조 4000억 원, 2026년까지 4조 1000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을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세울 만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드론이 뜬 이유는 명확하다. 비용이 저렴하고, 조작이 쉽고, 비행에 제약이 적고,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론의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인해 항공촬영, 순찰 및 감시, 건설 측량, 비상상황관리, 배송, 탐사, 방재, 정밀농업, 기상연구, 야생동물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쓸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지자체 및 정부 기관에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불법용지변경 감시를 드론으로 하고,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 대마초 재배를 드론으로 단속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 양체측 운전자를 단속해 벌금을 부과한다. 육군에서는 '드론병과' 주특기가 신설됐고, 올해부터 드론군단을 만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외국에선 드론으로 낚시를 하고 아이의 등갓길 위험한 상황을 드론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모도 있다. 이처럼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미래가 드론으로 인해 손 앞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드론으로 어떻게 시작할까**

어릴 적 고무동력기를 만들면서 '하늘을 날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우리 앞에 현실화됐다. 내가 날진 못해도 드론을 통해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하지만 막상 드론을 날려보기 전에 어렵지 않을까, 비싸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드론의 조종법이 같다. 마트에서 파는 입문용 드론에서부터 촬영용, 방제용 등 특수목적용 드론도 똑같다. 단, 드론에 따라 세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조종법이 같다면 드론을 배우는 길이 그렇게 막연하진 않다. 입문용 드론부터 연습하면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드론을 구매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드론을 구매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드론은 싸든 비싸든 비행을 시작하는 순간 고객 과실이 된다는 점이다. 전자제품처럼 1년 무상수리가 되는 제품이 아니다. 드론은 3차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행할 환경도 중요하다. 게다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드론을 구매하는 것도 똑똑한 소비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일단 드론을 사기 전에 고민할 첫 번째 부분은 '목적성'이다. 목

적이 불분명하면 잘못된 장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습용인지 촬영용인지 분명하게 정하는 게 좋다. 연습용이라면 굳이 비싼 드론을 살 필요가 없다. 이 순간 잘못 선택하면 몇 만 원이면 될 것을 수백만 원을 쓸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연습용이라도 카메라나 자동으로 위치를 유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세 번째는 날릴 장소다. 항공안전법상 드론은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다. 곧 개정 되겠지만, 현재까진 마트에서 파는 장난감 드론도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실내에서 날릴 것인지 실외에서 날릴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연습용 드론이라면 6만 원 밑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드론에 사용하는 배터리는 길어야 5분에서 8분 내외다. 충분한 비행을 하려면 추가 배터리는 필수적이다. 배터리는 짧게는 30분에서 한 시간 이상 충전하고, 5분 정도 날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추가 배터리, 충전기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파일럿이 운용하지 못하는 장비는 위험한 장치가 된다. 쉽게 말해 촬영용 드론은 윈도우 업데이트처럼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세팅도 해야 한다.

분당 회전수(RPM)는 드론 종류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촬영용 드론의 프로펠러는 풀을 깎는 예초기보다 더 빨리 돈다. 충분히 운용 및 조종을 익힌 뒤에 접근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드론을 날리기 전에 하늘길을 알아야 한다. 공항으로부터 9.3km 반경 안은 비행금지구역이다. 군부대, 발전소,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도 비행금지구역이다. 서울 및 경기 북부 대부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다. 일반인들이 하늘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드론 비행 가능 구역을 알려주는 'Ready to Fly', '드론 비행지역' 등과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안드로이드, ios 모두 다 지원되며, 앱을 깔아서 GPS 위치 켜기를 해두면 언제든 내가 있는 현재 위치의 비행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드론 자격증과 취득방법**

드론은 무게 기준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의 제한이 있다. 배터리를 포함한 기체 무게가 12kg 이상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전익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만 14세 이상부터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필기시험을 응시할 경우 제출 서류는 비행경력증명서 1부, 보통 2종 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또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증명서 등이다. 응시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응시 후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학과시험 과목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응용 등 세 가지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다. 학과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2년이다.

실기시험은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해 볼 수 있으며 구술시험과 실비행시험으로 나뉜다. 실비행시험에서는 비행 전 점검부터 이륙, 공중 동작, 착륙, 비행 후 점검 능력 등을 확인한다.

하지만 실기시험은 좀 까다롭다. 실기시험을 보려면 20시간의 단독비행시간이 필요하다. 20시간의 비행기록은 내가 드론을 사서 날렸다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지도조종자' 이상의 교관이 등록된 기체를 가지고 비행했다는 것을 입증받아야만 인정이 된다. 이런 이유로 국토교통부 20여 곳의 지정 교육기관이나 사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실기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 보통 교육기관의 수강비용은 200~400만 원 사이다. 학과시험 비용은 4만 8400원이며, 실기시험 비용은 7만 2600원이다. 시험일정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자격증은 드론방제 등 큰 기체를 운용하거나 드론을 직업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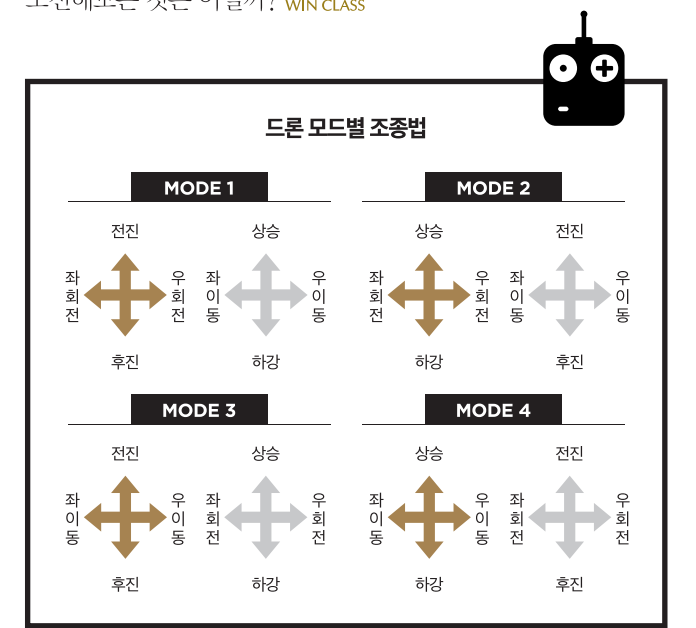
로 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취득한다. 취미 목적으로 촬영용 드론 정도를 운용할 계획이라면 굳이 자격증까지 필요하진 않다. 12kg 이하의 드론은 현재까진 아무런 자격증 없이 운용할 수고, 영리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드론 조종법**

드론 조종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성인 기준 1~2주 정도면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 조종법은 모드 1~모드 4까지 다양하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드론 대부분은 모드 1 혹은 모드 2를 쓴다. 어떤 조종법이든 자신에게 편한 것으로 조종하면 된다. 요즘 나오는 드론은 기본 설정값이 모드 2로 된 것이 대부분이다.

모드 2 기준으로 조종법은 왼쪽 스틱을 위로 올리면 상승이고, 내리면 하강이다. 왼쪽 스틱을 왼쪽으로 이동하면 제자리에서 좌회전하고, 오른쪽으로 보내면 제자리에서 우회전을 한다. 왼쪽 스틱은 고도와 회전을 조종하고, 오른쪽 스틱은 전후 진과 좌우 이동이다. 오른쪽 스틱을 위로 올리면 전진이고, 반대는 후진입니다. 오른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오른쪽 이동이고, 반대로 보내면 왼쪽이동이다. 모드 2의 조종법에서 상승과 하강, 전진과 후진의 위치만 바뀐 것이 모드 1 조종법이다.

아직은 드론 조종 자격증을 따더라도 쓸 데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드론의 산업화가 본격화 되면 분명 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드론 자격증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WIN CLASS





# 따뜻한 봄날에 만나는 전시·공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문화 소식을 만나봅니다.



전시

## 미니멀리즘 예술의 창시자 '댄 플래빈'의 국내 최초 기획전 댄 플래빈, 위대한 빛

댄 플래빈은 미니멀리즘(Minimalism) 아트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형광등의 빛을 이용해 공간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그가 선택한 형광등은 규격화되고 산업화된 사회를 반영함과 동시에 지적이면서 신비로운 빛으로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빛을 통해 회화와 조각의 영역을 넘어 공간을 작품으로 전환시키는 그의 예술은 현대미술은 물론 음악, 건축, 삶의 방식에 까지 혁명적인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은 빛이라는 새로운 소재가 공간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 📅 **일시** ~ 4월 8일(일)
- 📍 **장소** 롯데뮤지엄
- 🎫 **관람료** 성인 1만3천원 / 청소년 1만원 / 어린이 7천원
- ☎ **문의** 1544-7744



전시

## 20세기 가장 위대한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展

스위스 출신의 화가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20세기 최고의 예술가이자 조각가로서 모더니즘 정신의 정수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남겼다. 독창적인 형태와 비장한 사유의 세계를 담은 그의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자코메티의 어린시절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보낸 그의 전성기까지 그의 예술적인 성취 과정을 모두 보여주는 전시로, 작가가 죽기 바로 직전 작업한 마지막 작품 '로타르 좌상'과 작가의 상징적인 작품 '걸어가는 사람'의 유일무이한 석고 원본 조각상이 아시아 최초로 공개 된다.

- 📅 **일시** ~ 4월 15일(일)
- 📍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 **관람료** 성인 1만6천원 / 청소년 1만원 / 어린이 8천원
- ☎ **문의** 02-532-4407



공연

## 최초, 최장수, 최고의 완창판소리 무대 <완창판소리> 박애리의 <춘향가-김세종제>

판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소리를 모두 아우르는 노래이자 이야기이다. 국립극장 <완창판소리>는 이러한 매력을 지닌 판소리 한 바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하며 그 가치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4월의 완창판소리는 뛰어난 연기력과 소리 공력을 가진 배우로 수많은 창극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호평을 받았던 박애리가 맡았다. 이번 무대에서 그녀는 소리꾼으로서의 뿌리를 보여주기 위해 김세종제 '춘향가'를 조금도 생략하지 않고 6시간 동안 완창 할 계획이다.

- 📅 **일시** 4월 21일(토) 오후 3시
- 📍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 🎫 **관람료** 전석 2만원(8세 이상)
- ☎ **문의** 02-2280-4114



뮤지컬

## 찬란하고 위대한 감동의 대서사시 닥터 지바고

의사이자 시인이었던 유리 지바고의 파란만장한 삶과 사랑을 그려낸 작품 뮤지컬 <닥터 지바고>가 6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 격변기 속 흔들리는 주인공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하얀색으로 구성된 무대는 조명과 LED 파노라마로 구현된 영상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며 지바고의 시에 나타나있는 광활한 설원과 인간의 외롭고 나약한 정서를 부각시킨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별히 전쟁 속에서 피어난 평화와 희망의 순간을 노래한 '라일락 꽃이 피는 그곳'이라는 넘버를 처음으로 선보여 지바고와 라라의 감성선을 더욱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 📅 **일시** 2월 27일(화) ~ 5월 7일(월)
- 📍 **장소** 샤롯데씨어터
- 🎫 **관람료**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 **문의** 1588-5212





#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문장들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세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 나의 최소주의 생활 | 샤오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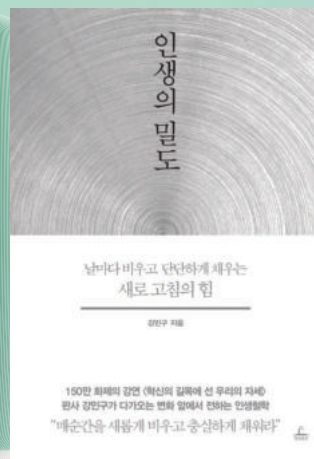
최소주의(minimalism)는 '물건', '일', '관계' 등 많은 것에 둘러싸여 있지만 풍족함 대신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저자는 동양식 최소주의를 통해 넘치는 물건 등에 둘러싸여 느끼지 못했던 휴가분함과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생활 방식에 관한 실질적 조언을 건넵니다. 책 속에 담긴 저자와 주변 사람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인의 사례에서 나를 편안하게 하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최소주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일상 속 번잡함을 없애기 위해 '태도', '욕망', '감정', '물질', '업무', '생활'이라는 여섯 가지 테마 속에서 최소주의 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을 찬찬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봅니다.

## 인생의 밀도 | 강민구 지음

특정 분야에서 어떤 정점에 도달한 깊은 통찰은 분야를 넘어 현대사회 전반에 두루 적용됩니다. 같은 24시간이지만 누군가는 24일처럼 보내고 누군가는 24분처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밀도의 차이가 하루하루 쌓이면 인생의 밀도는 현격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누구나 밀도 있는 삶을 원하지만 언제나 몰입해서 지낼 수 없기에 날마다 비우고 다시 채우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반추하고 앞날을 가능할 때 어제보다는 밀도 있는 오늘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나가면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을 받으며 착한 하루가 삶 전체로 이어졌을 때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밀도 있는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내 시간 우선 생활습관 | 닐 피오레 지음

30년 간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꿔놓은 닐 피오레의 「내 시간 우선 생활습관」은 시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자신에 대한 꼼꼼한 관찰과 기록,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도구를 통해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계획 혹은 올해의 목표를 매번 지키지 못하거나, 휴식 시간에도 죄책감을 가지며, 일단 새로운 일에 겁을 먹는 사람들의 시간표를 보면 낭비된 시간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시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반드시 해야 해' 같은 자기 암시의 말 대신 책임감 있게 선택함으로써 의욕을 북돋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WIN CLASS



#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필수상품!

# IBK로 연금 받으면 수수료 면제에서 대출까지 다양한 혜택이 팡팡!!

## 연금수급고객 전용통장

IBK평생설계통장으로 연금 받으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장해·보훈·기초연금)



• 각종 수수료 면제 **창구송금 (월 5회), 타행 ATM출금 (월 5회), 전자금융 타행이체, 당행 ATMT행이체**

### • 우대이율

- 연금이체
- 연금이체+교차거래\*

매일 최종잔액 50만원 이하 : **1.0%**  
매일 최종잔액 150만원 이하 : **1.0%**

(\*교차거래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  
① 당행 신용(체크)카드 이용대금 10만원 이상  
② 공과금자동이체 1건 이상  
③ 'IBK평생든든자유적금' 또는 'IBK연금플러스통장' 가입

### • 기타서비스

주요 통화 (USD/JPY/EUR) 50% 환율우대 서비스 제공  
연금알리미(SMS)서비스 혜택 등

## 4대연금고객 추가혜택

• 개인대출 금리우대 **전전월부터 전월 중 6대연금 (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장해연금) 60만원 이상 입금 시 0.2% 우대 가능**

• 부부힐링캠프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국립공원 방문 프로그램에 연금수급고객 우선 무료 초청**  
※ 국립공원 방문 프로그램 : 4~5월, 9~10월에 국내 주요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당일 여행

• 맞춤형 은퇴설계까지 **은퇴설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노후상담 및 자산관리 서비스 무료 제공**

\*상기 내용은 요약본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0446호 (2018.02.06) SX493 [게시기간: 2019.02.01]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규정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민핫라인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99, IBK기업은행은 금융·행정을 받지 않습니다. \*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